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창작지원 】 심의평

2023년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문학’ 분야 <경기문학 창작지원>에는 총 146건이 접수되었다. 응모 작가들은 작품 창작의 열기와 더 나은 작품을 위한 욕구로 넘쳐나고 있어 창작지원의 까닭에 부응하고도 남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예산 규모에 따른 선정 건수 한계로 4인의 심의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엄격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으로 첫째, 작가의 활동 실적, 둘째, 작품의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작가로서의 지속 가능성, 셋째, 예술적 성취도의 확장 가능성, 여타의 작가 및 독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 여부, 작품의 문학적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를 설정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작가와 작품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심의 위원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누구나가 동의 가능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다면 지나친 지역 편중을 피하는 한편 청년작가들의 선정 비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심의 위원들은 제출된 시와 소설이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과 입체적인 조망, 매력적인 표현과 독자들에게 대한 호소력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서로가 공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21명의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의 더욱 진전된 발전을 기대하며, 독자들도 만족할만한 우수한 작품을 충분히 창작해 나가기를 바란다.

2023.2.22.

심의위원	최현식 (문학평론가, 인하대학교 교수)
	박소란 (시인)
	최수철 (소설가)
	이재복 (문학평론가, 한양대학교 교수)